

전남

벼 조생종 재배 늘린다

전남도, 전체의 10%로... 햅쌀시장 고객 확보

전남도가 관행적인 모내기 시기보다 한 달여 앞당기는 조생종 조기(早期) 재배를 전체 재배면적의 10%로 확대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하는 적정 모내기 시기 연구에 박차를 가한다.

11일 전남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올해 익는 시기가 빠른 조생종 벼 조기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1만4천56ha보다 32% 증가한 1만8천500ha(전체 재배면적의 10%)로 늘릴 계획이다.

전남도는 타지역보다 먼저 햅쌀을 생산해 전국 햅쌀시장 고객을 확보하고 ▲고품질 전남 쌀의 지속적인 판매망 구축 ▲태풍재해와 병해충 피해 감소 등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조생종 벼 모내기 시기를 한 달여 앞당기는 조기재배에 나섰다.

조생종 벼 수확 후 미나리와 택사 등을 후작으로 재배,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

전남지역은 수확이 늦은 중만생종 품종을 90% 이상 재배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일반 쌀들과 경쟁을 해야하는 등 매년 쌀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 첫째인 지난 2008년에는 전체 벼재배면적의 6.5%인 1만1천993ha에서 햅쌀 5만3천t을 생산, 부가까지 353억원의 창출했으며 지난해에는 1만4천56ha로 늘려 햅쌀 5만7천t을 생산했다.

이와 함께 도 농업기술원 쌀연구소(소장 신해룡)는 지난 2008년부터 3년째 어느 시점까지 모내기 시기를

앞당겨야 안전하게 쌀을 생산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적정 모내기 시기 연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년간 연구결과 조기재배 모내기 시기는 4월 하순이 적합하고, 9월 상순 이전에 햅쌀 생산이 가능한 품종으로 완공벼와 조광, 주남조생을 선별했다.

4월초 이전에 모내기를 할 경우 병해로 초기에 생육이 부진, 5월이 되어 생육을 재개해 질소비료를 주는 방법과 저온기 육묘방법 변경, 모노점과이 용기 등 필요할 경우 등도 연구 중이다.

한편 전남도는 다음달 10일부터 여수와 순천, 고흥, 보성 등 10개 시·군 조기재배 시범단지(200ha)를 시작으로 벼 조기재배 모내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송기동기자 song@



강진 신기마을 전통장 담그는 날

11일 강진군 군동면 신기마을을 부녀회원들이 겨우내 처마 밑에서 말린 메주로 음력 정월장을 담고 있다. 신기마을 주민들은 지난 1991년부터 전통 방식으로 메주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강진=최현배기자 choi@

광산구 한시적 기구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존폐 논란

주민들 "열악한 재정... 기구 축소 바람직"

오는 6월 말에 시한인 광산구의 한시기구인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존치(存置) 여부에 공직사회와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산구 '미래도시개발사업소'는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난 2007년 6월 30일 신설된 한시(3년)기구이다. 그동안 시기관 1명, 사무관 2명 등 모두 15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며 체육시설조성, 송정북화

과를 배치해 명실상부한 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광산구의 열악한 조직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일부 주민과 공직사회에서는 광산구의 재정지출도가 19.3%로 열악해 오는 8월부터는 인건비 지출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하며 기구축소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산구 관계자는 "한 시기구를 연장하고 사업비를 확보해야 한다"면서도 "사업량이 없다고 판단되면 내년이라도 구조를 개정해 폐지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가 오는 6월 30일 시한인 미래도시개발사업소를 연장 운영하려면 중앙 부처의 승인 없이 구 조례만을 개정하면 된다. /중부취재본부=기원태기자 wtkee@

땅끝 매화축제

20~21일 보해농원서

보해농원에서는 11일 "해남군이 주최하는 '제2회 땅끝 매화축제'가 오는 20~21일 산이면 예정리 보해매실농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총 50여만㎡의 국내 최대 규모인 보해매실농원은 1만4천여 그루의 매실수가 어우러진 매화터널로 유명하다.

축제 기간에는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등 경연대회와 도전 가요열창 등 다양한 공연도 열린다. 축제 기간에 보해양조는 상급 200만원을 걸고 주최하는 '제9회 보해 매화사진 촬영대회'도 열린다. /윤영기기자 penfoot@

전남 농산물 수출 활기

해남 김자반 75t 대만, 나주 청양고추 100여t 도로

나주와 해남에서 생산된 청양고추와 김자반이 일본과 대만 식탁에 오른다.

나주시 산포면 덕래영농조합법인(대표 양관제)이 지난해 10월부터 매주 5t씩 현재까지 100여t의 청양고추를 일본에 수출, 5억여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영농법인은 저농능 농법 등을 통해 까다롭기로 소문난 일본 검역당국의 185가지 농약 잔류검사 등

을 무사히 통과했다.

일본은 토질이 화산석에서 고추 재배가 쉽지 않은데다 그나마 매운맛이 적어 국내 수출용 고추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해남 특산물인 김자반이 지난해 일본 35t 수출된데 이어 올해 대만으로 75t 수출된다.

이번 수출은 송지면 땅끝건해(대표 강희철) 등 3개 업체가 수출업체

인 경기도 ㈜진풍식품(대표 손성경)을 통해 10일 6.8t을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75t(11억원)을 수출한다. 이번에 수출을 하는 김자반은 판자반을 찢어서 10kg 단위로 포장해 수출하게 된다. 해남산 김자반은 깨끗한 땅끝 바다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돌김 원료를 사용해 생산하기 때문에 맛과 향이 뛰어나 국내외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중부취재본부=정철현기자 chjung@ /서부취재본부=박희철기자 dia@



한지로燈만들기 강진군 신전면 생활개선회(회장 이유환) 회원들이 최근 신전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한지를 이용해 고풍스런 등(燈)을 만들고 있다. 강진군 도서관도 오는 6월까지 15회에 걸쳐 전통 한지공예교실을 운영한다. <강진군 제공>

강진·완도축협 조합장 박종필씨 당선



지역대립 양상을 띠었던 강진·완도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완도출신 박종필(53) 후보가 당선됐다. 강진군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9일 총유권자수 2천944명 중 2천421명이 참여한 가운데 치러진 선거에서 박 후보는 1천40표(43%)를 얻어 강진출신 이종배 후보(758표·31%)를 누르고 당선됐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완도 전북·다시마도 수산물 지리적 표시 등록을 마쳤다.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는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의 명칭, 품질, 기타 특성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명칭에 기인한 경우 해당 지역 특산물임을 표시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강진시 완도군수는 "등록된 지리적 표시품에 대해 지역 특화자원으로 육성, 보호하고자 올해부터 지리적 표시품 지원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완도산 전복과 다시마가 수산물 지리적 표시에 등록됐다. 완도군은 전복, 미역, 다시마 등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 완료로 다른 수산물과의 차별성 확보와 함께 등록 명칭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 군은 민선 4기 핵심 사업의 하나로 3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 지리적 표시분과위원회의 서류, 현지 심사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최근 국립 수산물품질검사원에 전복, 다시마 등 수산물 지리적 표시

새얼굴

"친환경 원예작물 제값받기 최선"

전농식 대촌농협 조합장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고품질 쌀, 고추 등 원예작물이 제값에 거래될 수 있도록 유통사업을 활성화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습니다" 12일 취임하는 신임 전농식 광주시 남구 대촌농협 조합장은 "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시설채소 농가

들의 소득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전 조합장은 "청양고추와 피망의 명품화를 위해 농산물 가공공장을 설립해 일자리를 창출할 기반을 다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Advertisement for 'Hyosung Gongin Jeunggaesa' (효성공인중개사) featuring contact information (T.062-376-4056, H.010-3128-1515) and services like land and building sales, and real estate management.

Advertisement for 'Daedong Samil Budeongsan' (대인동삼일부동산) with contact info (FAX: 223-1772, H: 011-602-2532) and services including real estate transactions and property management.

Advertisement for 'Daeyangkwang Balseonso Bujiguham' (대양광발전소부지구함) and 'Gwangju Jeonnamkwon Chungheung Mart Gyuham' (광주전남권 중흥마트구함), highlighting various real estate and commercial opportunities.

Large advertisement for '(주)국민법률경제' (Jeonnam National Law & Economics) featuring a detailed table of legal services, contact info (062-1364-8700), and a list of branch offices across various regions.